

## 호주서 AI 발생...일본·홍콩은 곧바로 수입 중단

출처 : 아주경제

호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확인된 오리 2만4000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지난 2월 1일 밝혔다.

일본과 홍콩은 곧바로 호주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 가금육류협회는 이번 AI는 남부 빅토리아주(州)의 2개 오리 농장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협회는 일본과 홍콩의 수입 금지는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더브스 협회장은 “일부 국가가 과민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며칠 내로 호주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격리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닭 농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브스 회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에는 치명적이지만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리고기를 최상급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온 일당의 범죄현장을 공개했다.

당시 현장을 찾은 한 관계자는 “도저히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더럽고 어두운 환경이었다.”면서 “검컴한 실내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염화암모늄이 가득 든 봉지를 발견했는데, 이를 기름 안에 넣은 뒤 오리고기를 넣고 쪄내 오리고기 냄새를 없애고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염색제에 담근 오리껍질과 오리고기를 갈아 반죽한 뒤 양고기가 그려진 종이상차 안에 냉동한 채 포장해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안은 화학약품에 절여 A급 양고기로 둔갑시킨 오리고기가 인근 샵브샵브가게와 시장에 두루 팔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거한 100kg에 달하는 가짜 양고기는 모두 수거해 폐기 처분했다.

샤허커우구 관계자는 “얇게 썬 양고기를 물에 데치면 시간이 지나도 맑은 물이 나온다.

만약 양고기를 데쳤을 때 물이 검게 변한다면 가짜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 계란, 소고기, 햄, 분유, 식용유 등에 이어 가짜 양고기까지 등장하면서 중국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 중서 ‘오리고기→A급 짝퉁 양고기’ 둔갑해

출처 : 서울신문

최근 중국에서 오리고기에 화학재료를 첨가해 짝퉁 양고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 먹거리 논란이 재 점화 됐다. 지난 1월 31일 신화통신 인터넷 판에 따르면, 다롄시(市) 공안과 상업부 관계자들은 샤허커우구(區)의 한 무허가 영업소에서



## 美 매사추세츠서 AI바이러스 감염 백조 4마리 죽은 채 발견

출처 : 머니투데이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조류인플레인자(AI)바이러스를 보유한 4마리 백조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야생동물 및 어업당국이 2월 1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사추세츠 야생동물 및 어업국의 대변인은 이날 “죽은 4마리 백조 모두 AI 바이러스인 H1에 대한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이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조류에 의해서만 전염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위험한 병원성 조류인플레인자 바이러스는 H5N1으로 최근 중국, 홍콩 등에서 또다시 조류독감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해 아시아 일대에 조류독감 위험이 재 고조 되고 있다.

## 네팔, 고병원성 AI 감염 닭 8천 마리 집단폐사

출처 : 머니투데이

네팔 동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신화통신이 2월 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네팔 동부 순사리 지역에서 지난 며칠새 닭 8000마리가 죽었으며, 사체에서 AI 바이러스인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추가 정밀 조사를 위해 전문가들이 파견됐으며 일부 닭의 사체는 영국으로 보내졌다. 현재 순사리 지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고병원성H5N1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베트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초비상

출처 : 연합뉴스

베트남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추세를 보여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일간 푸오이쩌는 국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통제 상임위원회(NSAIPC)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19일 현재 AI 발생 보고 지역이 11개 성으로 늘어났고, 도살처분된 오리 등 가금류도 3만4천여 마리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월 20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AI 발생지인 타이화 성, 팡찌 성, 하이증 성, 하남 성, 타이응웬 성, 박장 성, 하이퐁 시 등에 7개 특별방역팀을 투입해 집중 소독 등을 하고 있지만 차단 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까오드억팻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AI에 효과적인 H5N1-Re 5 백신 5천만 회 주사분을 즉시 수입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소식통은 H5N1-Re 5 백신을 과거에도 사용해왔지만, 변종이 생겨나면서 일시에 처치할 정도로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신종 백신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3년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모두 341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